



남원 금동 김봉례 동장, 관내 경로당 방문 간담회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김봉례 동장이 지난 19일부터(6일간) 관내 경로당 11개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봉례 동장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고, 시정 주요 사항들을 직접 안내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제95회 춘향제 △시민 안전보험 △노인복육비 지원사업 등의 시책과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및 △남원누리사민제도 △제2중안경철학교 남원유치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김봉례 동장은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살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며, 현장에서 접수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가정 방문 건강 상담 서비스 추진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1월 17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일환으로 가정 방문 건강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동동은 최근 ‘어르신 몸도, 마음도 튼튼!’ 시책 사업을 운영, 고령층 및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와 더불어 맞춤형 건강 상담, 복약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 및 신고 전화 안내자석을 집안에 부착해 도움이 필요할 시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제95회 춘향제 등 각종 시정 홍보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변영지업사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치남, 조태봉)는 지난 20일, 1월 17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관내 변영지업사(사업주 박병태)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동충동은 1월 17구 소통행정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2025 평생교육 강사학교 강사 연수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법 향상을 위해 2025 김제시 평생교육 강사학교를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 활동 중인 강사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 공공영역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최적화된 퍼스널 브랜딩, 강사 브랜딩 등 강사 성장 전략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금정구 평생학습관 및 해운대구 하하센터 등 평생교육 시설 견학을 통해 다양한 학습 사례를 분석하고 최신 교육 트렌드와 교수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김제시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평생교육 강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평생학습질적 도약의 밑거름이자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새로운 100년의 비전과 사업 방향 논의

전주YMCA, 22일 창립 100주년 기념 정기총회·기념행사 출범식 개최

전주YMCA(이사장 김종기, 어울림교회 장로)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오후 1시 20분 신흥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평화센터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과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YMCA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겨레와 함께 100년! 지역과 함께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YMCA가 지난 100년간 전북 지역에서 펼쳐온 사회적 기여를 조명하고, 앞으로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YMCA의 미래 비전과 함께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화센터 설립 계획도 발표된다. 전주YMCA는 평화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성금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모금된 돈으로 YMCA 건물 공간 300여평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센터는 △1층 카페형 평화 나눔 공간 및 느린 아동 놀이터 △2층 북한이탈주민 지원 공간 및 교육·세미나실 △3층 독서 모임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등으로



김종기 이사장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자 및 후원자 명단을 평화센터 전면에 영구적으로 기록해 감사의 뜻을 영구히 전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YMCA의 새로운 사업 방향, 예산 리더십 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전주YMCA는 지난 10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이달부터 본격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동 불편으로 외출하지 못하는 예비 장애인 및 장애인 시민이 대상으로, 재활 전문요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 월 2회 가정을 직접 방문, 재활운동 서비스 및 관절구축 예방교육, 일상생활 동작훈련, 정서지원 등 폭넓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4년에는 의료기관 퇴원환자, 읍면동 복지기관 등에 의뢰, 재활 사각지대(뇌병변 등)에 놓인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재활 평가 및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15명을 대상으로 100회를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90% 이상의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통해 지역 보건의로·복지지원의 효율적 운영과 남원의료원, 전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복지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자원과 연계,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포괄적인 재활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소 정희연 방문보건팀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로 취약계층 장애인 시민에게 통합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일상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9일 국제교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65명, 석사 10명, 박사 11명 등 총 86명이 학위를 받았다. 경영학과 레반동 학생을 포함한 6명의 졸업생이 글로벌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국제교류원이 주관하는 별도의 행사로 진행, 학업을 마친 외국인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호텔경영학과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을 제공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에 300만원 상당 생필품 기부

전북은행이 정읍시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7일, 전북은행은 선물꾸러미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정읍시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선물꾸러미에는 즉석밥, 라면, 김, 누룽지, 쌀파자, 물티슈, 치약, 칫솔, 수세미 등 생활 필수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은행은 이러한 생필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기탁식에 참여한 전상익 부은행장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화수 시장은 “전북은행의 지속적인 나눔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비전대, 출산장려 위한 출산 교직원 축하금 전달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9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출산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선 교목의 지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우병훈 총장이 직접 교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전달했다.

최근 대학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등 교직원들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병훈 총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출산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대학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 입사생 81명 최종 선발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이 20일 고창(서울·전주) 장학금 입사생 81명을 최종 선발하고,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입사설명회를 열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대학생들이 애학심과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서울과 전주에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면학 분위기 조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1인실로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대, 의자, 노후 싱크대 교체 등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 장학금은 20명, 전주 장학금은 52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에는 80여명의 입사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화제예망과 소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 위치와 시설 현황, 입사 등록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장학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입사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자녀가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고창장학재단에 입사하여 고향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심덕섭 이사장은 “앞으로 고창을 이끌어갈 주역들을 장학금 입사생으로 선발하여 기쁘다”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애향분부, 경천·양지전 산책로 펫티켓 홍보

순창군 애향분부(회장 임예민)는 지난 19일 경천·양지전 산책로에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예민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반려견을 동반한 올바른 에티켓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20장을 부착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의미한다.

이번 홍보는 최근 경천·양지전에 반려견을 동반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배변처리, 타인배려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순창군청 앞 천변 주차장에서 출발해 경천 산책로와 양지전 산책로를 따라 진행했으며, 주요 지역에 펫티켓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도 행사 시작에 맞춰 격려 방문을 하며 참여자들을 응원했다.

임예민 회장은 “경천·양지전은 순창군이 자랑하는 대표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경천·양지전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